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불교조계종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권홍용 편집: 양재웅

믿음의 실천 기도의 실천

지난 2010년 제3차 청지기훈련의 말씀은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 때부터 시작된 기도 시리즈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구하는 기도만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일침을 가한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기도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청지기훈련 말씀을 되짚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시 16:1, 2009년 제1차)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와 믿는 자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특별 기도**(눅 6:12, 2009년 제2차)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기도의 본이 무엇이며, 특별 기도는 언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으며, 우리 교회에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눅 23:34, 2009년 제3차)는 교회를 온통 눈물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무지한 죄인들이 바로 매번 핑계 대는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이내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사 53:12, 2010년 제1차)는 다시 한번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실천, 즉 기도자가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마 6:13, 2010년 제2차)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으며, **구속자의 기도**(요 17:24, 2010년 제3차)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의 실천입니다. 청지기훈련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우리의 무릎까지 이어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2010년 제7차 성찬식
(1~5부예배 시)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화)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였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듣기를 원하였고, 보기를 원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다(마 13:16-18).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마 13:19-21). 그러나 이사가 선지자가 예언(사 6:9-10)한 대로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보아도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 이들의 모습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녹아 있다(마 13:22-23 ; 막 4:11-12, 23-25). 선지자들은 '믿음'은 기적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과 기적을 많이 보았고 체험하였지만 말씀보다는 표적만을 원하였다. 생명의 말씀은 길가나 들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였다.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 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전 1:17-18, 21-23).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자라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자들도 많이 있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골 1:6). 생명이 자라남을 느낄 수가 있다. 말로만 복음이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라간다. 세상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살전 1:5-6).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살전 2:13).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계속하여 역사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씀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들음(말씀을 받는다)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자를 세상은 미워한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다(요 16:33).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이방인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이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강조할 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갈 6:7-8). 종교인들이 심는 것이 있고, 거두는 것도 있다(호 8:6-7). 바울은 '심는다, 자란다, 거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영향을 받은 것(갈 6:9)으로 씨가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떨어지는 비유를 환기시킨다. 또한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씨가 비밀리에 자라는 비유와 밀과 가라지자가 함께 자라는 밭의 비유도 상기시킨다. 공판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였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와 또 교회에 이 구원의 비유는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천국의 비밀, 구원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이고 안위적인 부귀영화와 성공, 그리고 축복을 전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순수한 생명의 씨앗을 듣지 못한다. 듣기도 싫어한다. 심을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거두어들일 수가 없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빼앗는 다(눅 8:10-12).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또 시련을 당할 때에 견디는 자와 배반하는 자가 있으며,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으로 자라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재물과 향락으로 대체하고 있다. 두 주인을 섬기라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마 6:24).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비밀을 바로 듣자, 자라자, 거두자, 아멘.

LYDIA

⁽⁶⁾They passed through the Phrygian and Galatian region, having been forbidden by the Holy Spirit to speak the word in Asia; ⁽⁷⁾and after they came to Mysia, they were trying to go into Bithynia, and the Spirit of Jesus did not permit them; ... ⁽¹⁴⁾A woman named Lydia, from the city of Thyatira, a seller of purple fabrics, a worshiper of God, was listening; an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the things spoken by Paul. ⁽¹⁵⁾And when she and her household had been baptized, she urged us, saying, "If you have judged me to be faithful to the Lord, come into my house and stay." And she prevailed upon us.

(Acts 16:6~15)

Paul wanted to minister in Asia during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but was forbidden by the Holy Spirit (Ac. 16:6). His heart yearned for the souls in Asia, but as much as he tried "the Spirit of Jesus did not permit" him to enter there (Ac. 16:7). Asia was a logical place because of its vast number of people who knew nothing about Jesus Christ. As Paul struggled with his rejection, God called him through a vision to go to Europe (Ac. 16:9~10). Paul was probably excited about going there, thinking God was preparing a lot of people. When he got there he soon discovered that nobody of interest was there. After several days passed and the Sabbath arrived, his heart was lonely and he wanted to pray over the cold minds in Europe. He went down by the riverside and found a group of predominantly Jewish women gathered together for prayer. Amongst these women was a Gentile woman of Asian ancestry named Lydia. God's ways are truly mysterious ways. Paul preached the gospel to these women, and the "woman named Lydia, from the city of Thyatira, a seller of purple fabrics, a worshiper of God, was listening; an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the things spoken by Paul" (Ac. 16:14).

Lydia found her need for God so great that she joined a Jewish prayer group. This Asian woman came to Philippi, which was the leading city of the district of Macedonia, to do the business of selling her fine purple cloths from Thyatira. Lydia made friends with the Jewish women in Philippi for business purposes. Like Asia, Philippi was thick with idolatry and spiritual emptiness. She joined this prayer group to worship God because deep in heart she was seeking the Lord. Those who seek the Lord always find Him,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Jer. 29:13). God opened her mind to hear Paul's message of the gospel. Even the original Jews did not listen to God's Word, but this Asian foreigner, this non-religious businesswoman had a heart to hear. Is your heart open to the message of Christ?

Lydia found salvation so great she wanted others to know. In today's Bible passage we read that Lydia's

"household had been baptized" (Ac. 16:15). This powerful woman shared the message she had received. The Bible doesn't tell us how many family members or employees were in her household, but only that they believed and were baptized. Lydia confessed Christ publicly. As a businesswoman, Lydia knew how to communicate with people, and her travels made it easy for her to witness to others about Christ. Lydia wanted others to know about Jesus because she had found life's greatest possession. She wanted to share this good news. Is your heart open to sharing the gospel?

Lydia found her blessing so great that she let her joy overflow. She told Paul, "If you have judged me to be faithful to the Lord, come into my house and stay" (Ac. 16:15). Her joy in the Lord made her hospitable. She invited Paul and others to her house in the hope that her faith was evident. She invited them to stay as long as possible. During Paul's stay in Philippi, he was imprisoned. Lydia didn't shrink away from him but remained loyal. After Paul's release, the Bible says, "They went out of the prison and entered the house of Lydia, and when they saw the brethren, they encouraged them and departed" (Ac. 16:40). Lydia enjoyed the fellowship of other believers. Her lifestyle was good evidence of her faith in Christ. Does your lifestyle give evidence to your faith?

My dear friends, the story of Paul's second missionary journey is filled with many different places. When you take a serious look at Acts 16 you can see God's mysterious handiwork. Lydia, an Asian woman, was the first convert in Europe. God's plan of salvation to this world is through people, not the world's important people, but the people that open their hearts to God. Through Lydia, the gospel was able to go not only into Europe but Asia as well. God did not send Paul to Asia, but used Lydia. God had been at work in Lydia's life long before her meeting Paul. God gave Paul his vision to go and help Lydia. God's been speaking to you about salvation. The reason why is present in your location. Please allow the Lord to open your heart with His beautiful Word. Amen. 🙏

루디아

⁽⁶⁾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⁷⁾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 ⁽⁸⁾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⁹⁾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6~15)



김성관 목사

바울은 두 번째 선교사역을 아시아에서 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이를 막으셨습니다(행 16:6).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의 영혼들에게 있었지만 그럴수록 성령께서는 이를 더욱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행 16:7). 아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꼭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막으셨고,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부르셔서 유럽으로 가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행 16:9-10). 바울은 유럽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에 몹시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사역을 도울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곧 알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이때 그는 유럽에서의 냉담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대 여인들을 만나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 루디아로 불리는 아시아에서 온 이방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진실로 놀라웠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행 16:14).

루디아는 하나님을 찾았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도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팔던 이 아시아 여인은 장사하기 위해 마케도나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왔습니다. 루디아는 사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 여인들과 사귀었습니다. 아시아처럼 빌립보는 우상 숭배와 영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도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깊은 심령은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13).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아시아에서 왔으며 종교와 상관없는 장사를 하였던 이 이방 여인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까?

루디아는 구원을 찾았다

루디아는 구원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루디아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행 16:15). 이 여인은

자신이 영접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과 직원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복음을 믿었기에 세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루디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장사하던 여인이었기에 루디아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사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려 있습니까?

루디아는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

루디아는 참 복을 찾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녀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행 16:15).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녀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믿음의 명백한 증거로 그녀는 바울과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이때 루디아는 그의 곁에서 그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바울이 출옥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행 16:40). 루디아는 다른 신자들과 친교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선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2차 선교사역 중에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을 진지하게 묵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여인이었던 루디아는 유럽에서의 첫 개종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탁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에 보내는 대신 루디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루디아에게로 가서 도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로 열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

2010년 제3차 청지기훈련

구속자의 기도

(요한복음 17:24)

✚ 행복한 성도들이여 다 함께

매번 청지기훈련 때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이번에도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매마른 내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요한복음을 일독하면서 묵상하고,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찬송을 준비하면서 나는 '준비 다 했다'고 자만하고 있었다. 자랑스러 오만한 나의 모습이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주님과 관계를 맺은 자의 행복에 있어 성전에 앉아서 은혜를 기다리는데 연합찬양대의 첫 찬송인 '성도여 다 함께'가 '행복한 성도들이여 다 함께'라고 내 귀에 울려 퍼졌다.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한국의 황금 길을 걸어가는 기쁨은 감동처럼 넘치고 바다 같은 환희함이 성전에 가득하게 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임경순(권사, 22교구)

✚ 평화의 시간

청지기훈련은 일반 부흥회처럼 현란한 현수막이나 스타급 부흥 강사의 기교나 교회 내외의 화려한 치장은 없지만 차분하고 거룩한 성도들과 은혜로운 찬양대의 하모니, 특히 위임목사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청천벽력의 설교는 일관된 말씀 선포의 주력된 과정을 일으켜 세상과 편승한 자아가 깨져 나가고 성령이 내 영을 압도해 간 평화의 시간이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재사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의 보상을 받을 것인데 예수가 사리진 성공과 처세의 기복적 복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이미 주님의 뜻이라 한다. 성도들에게 왜곡된 자기 성취의 긍정적 사고와 배금주의를 숭상해 하고 있는 것이 기성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총련교회의 십자가 예수 복음이 청지기훈련 등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사의 은혜를 상고해 하고, 구속자들의 영혼을 위해 전보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전도와 선교로 열매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아멘. 최승미(성도, 새가족부양목부)

✚ 좁은 길을 한 걸음씩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다. 지금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되었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체가 감사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청지기훈련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회사 체육대회와 날짜가 겹쳤다.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긴 여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주님은 나를 회사 업무로 체육대회에서 제외시키셨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주님, 그런 주님이 위장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강권적으로 요청하신 기도는 은혜이면서 소망의 메시지가였다. 주님만 바라보려는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을 생각하는 연약한 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리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려는 메시지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을 생각나게 하였고, 예수님을 나의 주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무리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하셨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한다. 이재관(인수집사, 1교구)

✚ 표현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말씀을 시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왔건만 세 녀석의 못 말리는 장난기로 나는 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조용한 가운데 있길 원했지만 이리저리 망아지처럼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웃음보가 터진 아이들 때문에 기분 이 좋지 않았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나와 아이들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교회 본당으로 들어섰다. 진리의 말사인 주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영원한 영광에 이를 자들을 위하여 구속자는 이미 기도하셨다. 풍악한 죄인이건만 우리를 예정하시며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표현할 수 없는 주의 은혜이지 않은가! "찬란한 새벽 주 오시라 주 오시는 날 싸움은 끝이나라. 승리의 주님 곧 오시라 찬란한 새벽 우리 위해." 2000년 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자의 기도가 지금 주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 박경희(집사, 23교구)

✚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일찍 서둔 덕에 모처럼 지각하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다. 미리 묵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채 죄송스런 마음으로 아이와 혼란 책자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구속자의 기도'(요17:24). 주재성구를 읽는데 웬지 모를 기쁨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해서인지... 하지만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왔다. 나만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위해 눈물과 간구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이 기도가 모두를 위한 기도는 아니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함을 받고 성화된 자들만을 위한 기도라고하신다. '이 무리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까?' 포함되어 있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드러왔는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나 자신과 가족, 또 친구들을 위해 내 방법으로 기도해 왔던 나를 회개하였다.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나의 믿음, 아직도 뜨겁지 않은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 내가 나의 성령 충만, 다른 생령 우원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정말 든든하다. 나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도연(집사, 24교구)

✚ 예수님께 돌아오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위임목사님이 흐느끼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를 외치며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회개하고 살아 계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도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선한 청지기로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주력진(인수집사, 11교구)



✚ 십자가를 지고 오라

구속자의 기도를 생각하며 본당에 도착해 자리를 펴 막 온 성도들을 보니 마음이 숙연해졌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나는?”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는 한 번만 기도하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물리셨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얼마나 하는가?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주시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다.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서의 영광을 잠시 접어두고 이 땅의 기쁨만 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멀리 있음을 깨달았다. 세상 일에 바쁘게 쫓기듯 살면서 이 일이 주님과 나의 사이를 방해한다 생각 못 하고,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주님! 그러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종진(권사, 6교구)

✚ 회개합니다

오직 구원함을 받은 한국 시민만을 위한 주님의 기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인한 영원한 영광 등에 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내 마음 속 깊이 안타까움이 지리 없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국 자국마다 지은 것은 허다한 죄뿐인데,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합수록 가속 반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었는가? 나의 부모가,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그들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누구인가 잘 알 것이다. 오직 나를 진정 사랑해 주시는, 영광만을 받으셔야 할 죄 없는 우리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해 주실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나의 자량과 교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나를 내가 만든 죄인이라는 틀 속에 지리 잡게 해 놓고 그 속에서 살게 하였다. 주님의 피땀 흘린 기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찌 보면 주님의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자 같았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아버지 주님의 교훈 얻이는 한 순간도 숨을 쉴 수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인 나는 한 없이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한다. “회개합니다.” 이희우(인수집사, 14교구)

✚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늘 그랬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며 회사로 나가 하루일과를 시작했다. 오늘은 청지기훈련이 있는 날. 최대한 빨리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분주함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설렘었다. 요췌 회사의 어려운 일로 힘들어 했기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어서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던 나.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고 마음엔 참 평안이 없었던 나. 이런 나에게 오늘 선포된 주님의 말씀과 찬송은 메달뒀던 나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모든 걸 내려놓길 원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의 모습을 보곤 한다. 이번 회사일도 문제가 생겼다. 내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모습들. 이 문재는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 매달렸던 나의 모습들이 부끄러웠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천국에 함께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아직 회사일이라 해결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경배(집사, 17교구)

✚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권사 직분을 받고 처음 임한 이번 제3차 청지기훈련은 아주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었다. “구속자의 기도”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살아 계시니 나의 삶 속에 거하시며 함께 깨달은 감사의 청지기훈련이었다. 그 동안 나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 기도했음을 회개하며, 나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소망할 때 시련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시라도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참 귀한 시간이었다. 홍경숙(권사, 19교구)

✚ 회복의 두드림

무릎 꿇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도 무릎 꿇고 비는 것은 참 치욕스럽고 부끄럽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보다 더 능하더라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진다. 부끄러움, 치욕, 침 뱉음, 조롱, 시기, 비교 의식, 우월감 등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쁜 뜨겁고 가슴 벅찬 회복의 두드림이 있다. 우리가 목을 다 꺾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는 죄의 교만이 쓸고 간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리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라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베푸시 친히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도였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하기를 위한 기도였다. 하나님이지만 사도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현실은 최악과 기도의 거룩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이제 나는 마지막 날에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보며, 입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도 동참할 것이며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현숙(청년1부)

✚ 그곳, 천국

이 세상의 많은 복잡하고 잡다한 것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려는 순간에도 우리를 방해한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그 땅의 과일과 강한 거주민과 견고하고 심히 큰 성읍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영적 가나안을 볼 수 없게 한다. “주님! 주님의 기도를 통해 저의 기도제목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없는 제국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도리어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달기 원합니다.” 주님은 삶이 캄캄해질 때에도 주님 계신 천국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만사를 먹을 수 있고 어떠한 것도 방해할 없이 영원토록 주님 품에 안기어 살 수 있는 그곳, 천국. “회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벧후 3:11~12). 김연애(집사, 7교구)

✚ 은혜, 사랑 그리고 소망

이번에 ‘구속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청지기훈련 때 선포된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은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값없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하신 간곡한 기도였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가장 힘드실 그 때에 당신께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이다. 나 같았으면 패소에서 쳐다보기도 싫었을 제자들이 혹시나 시합에 넘어질까 염려하시며 잡히시기 직전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감동과 자존심, 권위와 세상의 영광에 유혹받는 우리가 넘어질까 염려하시는 주님의 간구이기도 하다.

이렇듯 ‘택하신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왜’ 사랑하시는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다. 아마 세상의 사랑처럼 ‘왜’인지 주님께 이유를 묻는다면 이런 대화가 되지 않을까? “주님, 저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많이.” 잠시 잠깐 후에 이별하는 세상의 사랑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는 구원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전 13:12). 주님 얼굴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볼 때의 기쁨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설레는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있을까?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 봤자 실제로 주님을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조그마한 상상,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신 청지기훈련의 은혜가 진실로 우리에게 응하는 그날이 오길 소망한다. 최은민(대학부)

메시아의 죽음 52

마가가 기록한 '이 때'

닫혀 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드린 기도 중 간접적인 부분,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막 14:35)에 답해 있는 '이 때'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때'는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종말론적 단어다. 예수님은 종중 마지막 때에 대해 언급하셨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좌익의 손에 팔리느니라"(막 14:41).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막 13:32). 사실, 마가복음의 시작도 "때"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이 때'에 대한 언급은 다른 성경에서도 기록되었다. 바울은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나와 자다가 깨 밤에 벌여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롬 13:11).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도 '이 때'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자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단 11:35, 40). 또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아주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해야 함을 기록하였다(단 12:1, 4).

성경은 마지막 때, 즉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친다. 이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종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행 1:6-7).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막 13:33).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과 환경의 눈치가 아니다. 자기 의, 교만, 공로주의에 우리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적 신앙이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은 지금이 회개의 때요 은총의 때다. 이 중요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딤후 1:15). 이것을 기억하며 좁은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잊고 매순간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만과 외식에 빠져 들어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하셨다.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하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계획을 완성하셨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걷고 있다면 무척 고민스럽고 괴로울 수 있다. 사탄 마귀는 이 기회를 틈타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시험(막 1:13, 23, 32)했던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막 4:15), 세상 길로 가도록 미혹할 것이다(막 7:25, 8:11).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때'가 자기 의와 공로로 끝나지 않고 복음과 은총으로 끝나도록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때'를 위한 답은 십자가다.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14:1-6)

예수님은 매우 괴로워하시며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다. 바로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요 13:21). 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도 반드시 예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밝히셨다(요 13:38). 이미 모든 상황은 종교지도자들의 간계로 인해 예수님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졌다. 깊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매우 불안정하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분야 등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파괴되어가는 지구환경으로 인한 자연 재해로 사건과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눅 21:23-26). 불평이 진리인 양 판을 치는 세속에 물든 교회 안에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회개의 눈물이 말랐다(마 24:12). 이와 같이 우리는 제자들처럼 깊은 근심에 빠져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가고 있다.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께로 가야 한다.

● 마음에 결정을 못할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깊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만 보았다. 괴로움 중에 절망적인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만 보았던 것이다(요 13:21, 36-38). 자신들의 기대와 어

긋나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은 더욱 깊은 근심에 빠졌다. 그들의 근심이 타당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점이다. 마음에 결정을 못할 때 근심하게 된다.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아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다.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매우 단순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주께서 십자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사 26:3).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 불확실한 마음을 치료하신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랐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자들은 헛갈렸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진실로 구주 메시시아인가? 라는 불확실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요 14:4)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요 14:5)라고 대답했다. 사실, 예수님은 3년 간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 문제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련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있었는가? 제자들은 좁고 험한 십자가 길이 아닌 넓고 편한 세상 길을 초점을 두었기에 불확실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불확실한 마음이 치료된다.

● 구원받지 못한 마음을 치료하신다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4-6).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마음을 치료하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모든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 이미와 계신 주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의 열매를 올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예수님만이 진리시며 대답이시다. 지금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자. 아멘.

2010년 제5차 학습·세례식

구원의 기쁨, 구원의 표

지난 10월 24일에 2010년 제5차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학습(30명), 세례(26명), 입교(11명), 개종(2명), 유아세례(23명)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성도들과 그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누군지 그리스도로 말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노니라"(갈 3:27).

【유아세례】

박소윤(아버지명, 육안연정)



저의 가정은 소
운이로 인해 구
원받았습니다.
소운이가 아니
었다면 저의 가
정은 아직도 세
상 가운데 속에
있었을 것입니
다. 소운이로

인애 엄마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같은 날 세례를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감격과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 소운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운이는 어린이집에서나 집에서 항상 찬송 듣는 것과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의 가정어항상 찬양으로 넘치고, 예배가 기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도제목이 더 있다면, 우리 소운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고, 강습에서도 본인 스스로 주님께 자기 신앙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은우(아버지명, 염태준수)



사실 이렇게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은혜
입니다. 은우
가 태어났을
때 15일 간
음습이었을
정도로 많

이 아팠었는데 중원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에 주셔서 우리 은우를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인 '은우'로 은우라고 지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의 입교으로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

록 말씀 안에서 양육할 거예요. 저의 가정도 처음 믿음 끝까지, 주님 안에서 첫사랑을 지킬 겁니다. 기도제목은 우리 은우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살게 해 달라는 거예요. 천국 입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지환(아버지명, 최자명정)



지환이가 지금
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렇게 주위 자
녀로 칭찬 받
는 거룩한 세
례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

다. 성경 말씀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우리 지환이가 일생 동안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의 역시 지환이를 양육하는 선교사 역할의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곽예린(아버지명, 최경숙)



만찰 아이
가 아를 때
인데도 이
렇게 세례
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응
답이고 은

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린이 건강하고 주님 은총 안에서 예배를 차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예린이와 함께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학 습】

• 생각보다 학습과정의 빠르고 끝나는 열렬함입니다. 그 동안 몰랐던 기독교 교리를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남편 친구의 부인이 이 교회 교사님이신데, 그분 끝으로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언니랑 같이 학습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남편도 빨리 세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세상 것을 사랑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성희**

• 어머니가 지난 7월에 뇌졸중과 뇌경변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저희 차매 물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비록 저의 곁에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저희가 오늘 학습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희 가정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교회 모임과 예배, 집회에 성실히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나희**

• 입신 9개월이래 학습교육과정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도 은애 받고 매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도로 결혼하면서부터 교회에 다니다가 일 년 만에 학습을 받는데 남편은 저를 위해서 이번 학습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보여 준 헌신을 본받아 저 또한 부족한 점을 채워서 타인에게 본이 되는 전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제목은 아이를 건강하게 순산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회사와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 식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영영**

취재·임동현, 정영모 기자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2일(금) ~ 11월 20일(토)	6교구 4팀	송영삼

현재 시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일(월) ~ 11월 9일(화)	23교구 4팀	이연숙
11월 3일(수) ~ 11월 11일(목)	1교구 2팀	이승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27일(수) ~ 11월 4일(목)	23교구 3팀	박노의
10월 29일(금) ~ 11월 6일(토)	9교구 3팀	전성숙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257	한지환	영아부	11		1269	배수근	양육반	6	
1258	이주희	영아부	22		1270	김정은	통신반	19	김정인
1259	강규빈	영아부	22		1271	이재금	양육반	6	
1260	김종룡	양육반	16	이진	1272	김소정	고등부	8	이정희
1261	김인정	양육반	14	이종희	1273	김혜린	양육반	2	이정애
1262	김연해	적응반	13	임종영	1274	최은정	양육반	2	김희동
1263	김철	통신반	10	박향란	1275	홍순환	양육반	21	
1264	이숙희	적응반	2	이홍주	1276	김정태	통신반	4	오영신
1265	양태만		9		1277	조선형		4	오영신
1266	전윤선	중등부	8	김형철	1278	김준주		4	오영신
1267	김혜영	양육반	2	한만교	1279	김강은	적응반	13	황명하
1268	엄진영	양육반	12	이성욱	1280	이환	통신반	22	박현숙

